

Modern K Music Academy 영상수업 주목해야 할 밴드 3팀 (소란, 글렌체크, DAY6)

소란은 리더.보컬 고영배를 중심으로 베이스 서면호, 드럼 편유일, 기타 이태욱으로 이뤄진 4인조 밴드이다. 2009년 가을에 결성 되었으며 해피로봇 레이블에 소속되어있다. 작곡가를 꿈구며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던 고영배(보컬)가 직접 만든 데모를 들려주며 멤버들을 섭외했다. 뷰티풀데이즈 등으로 활동하던 베이스리스트 서면호(베이스)와 서울드럼페스티벌 최우수 출신이자 이미 드럼씬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편유일(드럼), 서울예대출신의 기타리스트자 BTS를 대표로 그 외 다양한 앨범에 참여한 세션맨 이태욱(기타)이 참여하면서 현재의 밴드 소란의 틀을 갖췄다. (원래 이승환 밴드의 기타리스트 전훈이 1집에 참여를 하였으나 탈퇴하였으며, 서면호와 같이 작업을 하던 이태욱이 영입되었다.) 2010년 '그 때는 왜 몰랐을까'로 데뷔하였으며, 2012년 첫 번째 정규앨범 'Natural'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장으로 정규앨범과 15장의 EP를 발매하였다.



글렌체크(Glen Check)는 보컬,기타의 김준원, 신디사이저,베이스 강혁준으로 이뤄진 신스팝,일렉트로니카 밴드이며, 2인조이지만 라이브에선 드럼이 추가된 밴드의 형태로 공연을 한다. 2011년 'Disco Elevator'라는 EP 앨범으로 데뷔하였으며, 2013년 제 10회와 2014년 제 11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음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글렌체크는 최근 음악씬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밴드로서 기존의 록비트가 주가 된 밴드형태가 아닌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주도 하는 전자음악의 영역이 가미된 밴드로서 최적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까지 2장의 정규앨범과 9장의 EP앨범을 발매하였으며 비스츠&네이티브스 레이블(이센스,XXX등 소속) 소속이었으나 2019년 현재 재계약을 안하고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진행중이다.



데이식스(DAY6)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레이블 Studio J 소속의 5인조 밴드 보이그룹이다. 2015년 9월 데뷔하였으며, JYP엔터에서 밴드로 데뷔한 최초의 아티스트이다.(원더걸스의 밴드 컨셉 활동은 있었음.)

리더인 성진(기타,보컬), JAE(기타,보컬,랩), Young K(베이스,보컬), 원필(신디사이저,키보드,보컬), 다운(드럼,보컬), 준혁(키보드,보컬)로 6인조로 구성 되었으나 멤버 준혁이 JYP와 계약 해지 되면서 현재의 5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멤버들의 성향이 확연히 다르며, 어떤 멤버가 참여했느냐에 따라 곡의 장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2집 'Daydream'부터 참여 멤버를 표시하고 있어 멤버들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Beyonce (비욘세)



비욘세는 미국의 가수, 프로듀서, 배우, 패션 디자이너이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 예술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공연을 하고 대회에 나가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다. 비욘세는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알앤비 걸 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리드 싱어로 데뷔했고, 이 그룹은 5,0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미국에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걸 그룹으로 남았다. 그룹 활동을 쉬는 동안 2003년 솔로 데뷔 앨범 "Dangerously in Love"를 발매했고, 세계적인 솔로 음악가로 거듭나게 된다. 이 음반은 세계적으로 1,100만 장의 판매량과 "Crazy in Love", "Baby Boy"와 같은 빌보드 핫 100 1위 싱글, 그래미 상 다섯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이름	비욘세(Beyonce)
본명	비욘세 지젤 놀스
국적	미국
출생	1981년 9월 4일
직업	가수, 배우, 프로듀서
데뷔	데스티니스 차일드 (1997년) 솔로 (2003년)

2005년에는 데스티니스 차일드 해체와 함께 2006년 두 번째 정규 앨범 B'Day를 발매했다. 싱글 "Deja Vu", "Ring the Alarm", "Irreplaceable"은 빌보드 핫 100 10위권에 진입했으며,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드림걸즈》의 주연으로 출연해 골든 글로브상에서 2부문 수상을 하면서 영화배우로서도 성공을 했다. 연기 경력은 《핑크 팬더》(2006), 《캐딜락 레코드》(2008), 《옵세스》(2009)까지 계속된다. 2008년에는 제이-지와의 결혼과 함께 자신의 또 다른 자아 사샤 피어스를 내세운 세 번째 정규 앨범 I Am... Sasha Fierce를 발매했다. 2010년 제52회 그래미 상에서 "Single Ladies (Put a Ring on It)"로의 올해의 노래를 포함한 6관왕에 오르며 최다 수상 여자 가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1년에는 1970년대 펑크, 1980년대 팝, 1990년대 소울을 다룬 네 번째 정규 앨범 4를 발매했다. 2013년에는 다섯 번째 정규 앨범 Beyoncé를 발매,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며 여자 음악가로는 최초로 데뷔 음반부터 다섯 번째까지 모두 1위로 데뷔하는 기록을 세웠다.

비욘세는 스스로를 "현대판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며, 주제는 주로 사랑, 관계, 일부일처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한에 대해 다룬다. 무대에서 가창력과 함께 역동적이고 큰 안무 공연은 평론가들로부터 현대 대중 음악계에서 최고의 가수로 평가되고 있다. 22년의 음악 경력 동안 17번의 그래미상을 수상과 함께 데스티니스 차일드 시절 6,000만 장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1억 1,800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올리고 있어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 중 한 명이다.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는 비욘세를 2000년대 탑 인증 아티스트로 선정했다. 2009년 《빌보드》는 여자 가수로는 처음으로 2000년대 톱 라디오 송 아티스트로 선정했고, 전체년도에서는 4위에 선정되었다. 비욘세는 2014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꼽혔고, 포브스에서는 셀레브리티 100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포브스에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셀레브리티 1위, 2017년에는 포브스 선정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여가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수로도 선정됐다. 또한 빌보드에서 2010~2014년 가장 임팩트 있었던 아티스트 1위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동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많은 가수들이 2010년대 후반에 오면서 큰 하락세를 맞이하는 것과 달리 꾸준한 전성기를 유지하면서, 아티스트로서의 능력과 성취 또한 널리 인정 받고 있다.